조계종 '행정 · 교육 · 포교'도 유튜브로!

조계종 교육원 · 포교원 유튜브 채널 개설 잇달아

신성민 · 노덕현 기자

조계종 행정과 교육, 포교 등 전 분야에 걸쳐 유튜브 채널 개설이 이뤄지고 있다. 미디어 시대에 맞춰 각 분야별 유튜브를 통한 홍보와 인재양성이 이뤄지고 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 이하 포교원)이 8월 10일 개설한 'GO!사리' 유튜브 채널이다. 'GO!사리' 유튜브 채널은 포교원의 불교크리에이터 창작지원사업 결과 선정된 우수 창작자로 구성된 프로젝트로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보이는 예능형 콘텐츠다.

'GO!사리' 팀명은 강산 씨의 아이고 절런에서 'GO'를, 찬불가 앙상블그룹 별빛사리에서 '사리'를, 장정윤 작가의 인스타툰 '별세음공주 공덕연'의 구슬이 모여 만들어진 합성어다.

전국각지에서 자생할 뿐만 아니라 환경조건이 나쁜 곳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인 고사리처럼 'GO!사리'도 어디서든 불교매력을 뽐내며 포교에 정진하겠다는 의미다.

리더인 강산 씨는 "'우리가 부처님처럼 유명해질 수 있을까?' 라는 화두를 갖고 영상을 올리고, 사찰을 찾아 종횡무진할 것"이라며 "불교는 무겁고 어려운 종교라서 다가가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싶은 목표가 있다. 기존 포교 콘텐츠

프로젝트팀 구성해 예능포교 도입

출가자 모집 및 상담도 유튜브로

종단 공식 홍보채널 운영 준비 중

들에서 보인 교육적이거나 신행중심적인 내용을 지양하고 예능형 포교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산 씨는 이어 "조금은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 가장 중요한 부처님 가르침도 놓치지 않겠다. 많은 분들이 콘텐츠를 시청하고 불교는 어렵지 않고 재밌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 'GO!사리'(사진 왼쪽)와 조계종 교육원의 유튜브 채널 '출가'(사진 오른쪽)의 화면 캡쳐.

'GO!사리' 팀의 첫 콘텐츠는 현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상태이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업로드 된다. 향후 사찰을 찾아 총 21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도 최근 유튜브 채널 '출가'를 개설했다. 출가자 모집을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국민 멘토 혜민 스님과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작가 원제 스님 등이 출가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답하는 캠페인 영상이 올라와 있다. 또한 조계종 초대 종정 효봉 스님과 에세이를 통해 무소유의 가르침을 전했던 법정 스님 등 불교계 선지식들의 출가 이야기영상도 눈길을 끈다. 출가 동영상 공모 수상작들도 업로드 돼 출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

조계종 교육원 관계자는 "유튜브를 통해 출가에 대한 선입견을 지우고 출가 방법과 수행생활을 바르게 알려 나갈 것"이라며 "향후 출가 주제 홍보 영상과 출가상담사 스님들의 안내 영상 등이 올라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도 기획실 홍보국을 중심으로 종단 공식 홍보 유튜브 채널을 준비 중이다. 현재 계정만 개설된 상태로, 홍보국은 현재 운영 방안과 콘텐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단 차원의 유튜브 채널 개설에 대해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유튜브 채널의 경우 1020세대 뿐만 아니라 5060세대들의 접근도 높아지고 있기에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때가 왔다"며 "다만 범람하는 유튜브 채널들 사이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미와 단순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불자, 더 나아가 일반인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콘텐츠 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만해 스님 평화정신 만방에 전하자"

제24회 만해대상 시상식

포티락 스님 등 5명 수상



만해축전추진위원회는 8월 12일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제24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위원장 곽채기, 동국대 교무부총장)는 8월 12일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제24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윤성이 동국대 총장, 최상기 인제군수, 주호영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올해 만해축전 평화대상은 태국 아속공동체 창시자 포티락 스님이 수상했다. 실천대상은 산악인 엄홍길 씨, 계명대 대구동산병원(병원장 서영성)이 받게 됐다. 문예대상은 소설가 김주영 씨와 시인 신달자 씨가 공동 수상했다.

만해평화대상을 수상한 포티락 스님을 대신해 상을 받은 아속공동체 켄파 선생은 "50여 년 동안 실제 삶의 현장에서 팔정도를 구현하기 위해 인생을 바쳤다"며 "삶의 대안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만든 아속공동체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다"고 소감을 대신 전했다.

만해실천대상 수상자 산악인 엄홍길 씨는 "한용운 스님의 깊은 뜻을 이어받아 평생 네팔과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하는 도전의 삶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실천대상 공동수상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의 서영성 원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위한 공공의료의 길을 끝까지 걷겠다"고 밝혔다.

만해축전 명예대회장인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이날 축사에서 "만해스님은 나라를 잃은 우리민족에게 강인한 불굴의 정신을 일깨워주시고,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에게 자유와 생명의 고귀함을 가르쳐주셨다"며 "오랜 세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면서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들의 만해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0 만해축전'은 만해대상 시상식을 중심으로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 · 1879~1944년) 스님의 사상과 문학 혼을 기리기 위한 행사들로 이뤄져 있다. 동국대, 강원도, 인제군,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후원하고 만해축전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축전서는 '생명과 공존'을 주제로 학술세미나, 서예대전, 청소년백일장 문화예술 및 경연대회 등이 8월 14일까지 펼쳐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노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오체투지

8월 13일 국회대로서

미통당서 민주당까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여야 일부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왜곡적인 시각을 드러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8월 13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2차 오체투지에 나섰다. 오체투지에는 사노위 위원장 혜찬 스님과 부위원장 지몽 스님 등 위원 스님들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 이주 · 비정규 노동자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사노위는 서울 국회대로 미래통합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까지 오체투지로 순례하며, 정치권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과 오해를 멈추고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을 향한 국민 여론은 상당수 찬성입장에 가깝다. 올해 인권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법 제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88.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찬성 입장 87.7%로 집계됐다.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아닌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8월 13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미래통합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사까지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이에 사노위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이제는 각 정당들이 일부 개신교계 눈치보기를 멈추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비와 사랑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각 당에 대해 즉각 당론을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남북관계 여론형성 불교계가 주도해야"

정영철 교수, 민추본 토론회서

경색된 남북관계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간 대화 · 협상의 복구이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의 여론형성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남북관계가 악화된 근본적인 요인은 양측 정부간 합의에 대한 실행 미비라는 점에서, 정부의 실천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8월 13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가 개최한 '남북관계 위기극복을 위한 정세토론회'에서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불교계 역할과 과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하노이 회담 후 교착상황은 북한에게 좌절과 실망, 나아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한 계기가 됐으며, 우리 정부 역시 중재자나 촉진자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남북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행동도 전혀 하지 못하는 등 좌절을 겪었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해 "남북문제의 큰 걸림돌은 북미관계에 종속돼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남북관계의 교착은 물론, 정부의 자율적인 대북정책 실행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실제 한미워킹그룹에 의해 대북지원과 협력 활동도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적으로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가 외적 변수로 작용함으로써 남북이 독자적으로 모든 합의를 이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강 교수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불교계 등 시민단체들이 직접 북한과 접촉하거나 교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의제 형성,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론형성과 압박 등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교수는 "과거 북한과의 관계에서 불교계 시민사회단체의 인도적 지원이 지렛대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이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며 "대북교류 · 협력의 주체인 북한의 내부적 변화를 인식하고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I·SEOUL·U
서울관광재단 SEOUL TOURISM ORGANIZATION
2020 SEOUL SHOPPING FESTA × 템플스테이 TEMPLESTAY
서울쇼핑페스타
템플스테이
2020.9.1 – 9.13 (13일간)
서울 사찰에 한하여
템플스테이 참가비 30% 할인
예약 방법 www.templestay.com에서 예약 가능. 운영사찰 및 참가비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